

제 127호 한국인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요소

한 달 반에 걸친 한국 방문을 끝내고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번 방문동안 여러 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 지난 달 대부도의 경기도공무원수련장에서 열린 전국연수원장 연수회에서 들었던 "한국인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요소"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일곱 가지 요소"

1. 끼가 있다.
2. 깡이 있다.
3. 찌가 있다.
4. xx꾼 이다.
5. 꿈이 있다.
6. xx꼴이다.
7. 끈이 있다.

대부도에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 위 리스트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리스트에 나열된 요소가 모두 쌍"ㄱ"자로 시작되는 재치에 반하기도 했지만, 일곱 요소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는 "있다, 없다"로 구분되는 요소로써 "끼, 깡, 찌, 꿈, 끈" 등입니다. "끼"란 재주와 재능을 뜻하는 기(技)와 기운 기(氣)가 겹친 속어로 본다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흐르는 재주"로 풀이될 것입니다. "깡"이란 "gut"으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결단력, 추진력, 투기심 등도 포함될지요. "찌"는 창의적 문제풀기(creative problem solving)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꿈"은 희망을 가지는 정신을 뜻하고, "끈"이란 삼연(혈연, 지연, 학연)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대체로 선천적인 요소로서 배우기보다는 타고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이다, 아니다"로 구분되는 요소로써 "꾼"과 "꼴"입니다. "꾼"이란 professional이라는 명사에 가장 적합한 한국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꼴"이란 사물의 생김새나 됨됨이란 뜻이므로 사람에게 적용될 경우 (꼬락서니) 인품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 요소들은 후천적인 요소로써 정규 교육으로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꾼"은 직업교육이나 전공교육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꼴"은 인성교육이나 교양교육에서 얻어질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선천적과 후천적인 요소로 나뉘놓고 볼 때 한국인의 성공 조건 일곱 가지중 단 둘만 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끼"와 "깡"과 "꿈"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새시대에 걸맞은 교육은 학생들의 "끼, 깡, 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피"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꾼"으로 자아성취 하도록 돕고, 올바른 "꿀"로 인도해주고, "지연(知緣, 정보화/지식네트워크)"이라는 새시대적 "꾼"을 형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벽, 2001